



제1회 포천시체육회장기 궁도대회에 참가한 여무사들이 '관중(貴中)'을 위해 힘차게 활시위를 당기고 있다.

## 포천시체육회장기 궁도대회

### 제1회, 대군정서 개인전 · 단체전 개최

포천시체육회는 궁도의 정착과 저변확대를 위해 제1회 포천시체육회장기 궁도대회를 지난 16일 신북면 덕동리의 대군정에서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포천시궁도협회(회장 유재영)가 주관하고 용호정과 동부정, 국사정, 대군정의 궁도협회 회원 60여명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눠 치러졌다.

장년부, 노년부, 여무사 등 3개 부분의 개인전은 화살 5개(1순)로 3번을 쏘 '관중(貴中)'된 점수로 순위를 결정했다. 또 단체전은 각 정에서 7명이 출전해 점수가 가장 낮은 2명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해 우승을 가렸다.

먼저 개인전은 ▷장년부 ▶1위 유재영(대군정) ▶2위 유재선(대군정), 이호관

(대군정) ▶3위 정남훈(동부정), 최광진(대군정), 양재화(용호정) ▷노년부 ▶1위 심상복(동부정) ▶2위 이현달(동부정), 유명렬(국사정) ▶3위 최춘식(대군정), 윤혜영(동부정), 성열호(국사정) ▷여무사 ▶1위 박재수(동부정) ▶2위 김영례(동부정) ▶3위 안길숙(대군정) ▶조물기 이현달(동부정) ▶노기상 김재인(대군정)이 차지했다.

단체전은 ▶1위 대군정(54중) ▶2위 용호정(38중) ▶3위 동부정(37중) ▶협동상 국사정(34중)순으로 순위가 결정됐다.

유재영 회장은 대회사에서 "궁도는 전신운동으로서 신체단련과 인격수양을 위해 좋은 운동이다"며 "생활체육으로 궁도가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협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시문운영위원회 골프회

골프회 회장(김태규)은 지난 19일 일동면소재 필로스GC에서 11월 정기골프대회를 갖고 우의를 다졌다.

## 제2회 포천시체육회장기 배드민턴대회

반월, 소흘 · 일동 제치고 종합우승

포천시체육회는 지난 7일 포천종합체육관에서 제2회 포천시체육회장기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했다.

배드민턴 동호인이 한자리에 모여 친목과 화합의 장과 배드민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224팀 312명이 참가해 열린 각속속에서 승부를 펼쳤다.

이날 경기는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으로 나눠 진행되었는데 각 종별로

▶장수부(70세 이상) ▶노년부(60세 이상) ▶준노년부(50세 이상) ▶장년부(40세 이상) ▶준장년부(30세 이상)으로 구분해 치러졌다. 이 중에서 장년부와 준장년부는 다시 A·B·C급으로 구분해 경기를 펼쳤다. 또 경기방식은 21점 1세트 경기로 토너먼트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각 클럽을 대표해 출전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한 경기에서 종합우승은 반월클럽이 차지했으며, 준우승에는 소흘클럽, 3위는 일동클럽이 각각 차지했다.

지협배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종합체육관에서는 지난 7일 224팀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회 포천시 체육회장기 배드민턴대회가 열렸다.

## 포천시체육회장기 축구대회 일동축구단 우승

제2회 포천시 체육회장기 축구대회가 지난 13일 일동축구단의 우승으로 8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야간경기로 이번대회의 폐회식에서는 일동축구단(감독 박필식)이 일동축구사랑(감독 신연홍)팀을 7대2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일동축구단과 일동축구사랑팀은 원래 한 개의 팀으로 이번 대회에는 팀을 둘로 나눠 출전했다.

영북축구단(감독 김황겸)과 원일축구단(감독 박용완)은 일동축구단과 일동축구사랑팀에 각각 2대1과 1대0으로 저 공동3위로 단체상을 수상했다.

또 일동축구단의 정달국 선수는 7골로 득점왕을 차지했고 양성호 선수는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한편 원일축구단은 부상으로 받은 축구용품상품권 30만원을 가산초등학교 축구부에 전달키로해 참가선수들에게 박수를 받았다.

또한 소년체전 8강 성적에 빛나는 일동중학교에게 50만원, 가산초등학교축구



일동축구단 선수들이 포천시 체육회장인 박운국 포천시청과 한자리에 모여 대회 우승을 자축하고 있다.

단에게 30만원의 축구용품 상품권이 증정됐다.

포천시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심판의 판단 시비 등 문제점도 있었지만 이해의 차원에서 잘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야간경기가 의미는 있었으나 추위로 인해 선수와 관중들이 함께 할 수 없었다"며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 내년 경기는 관계자들과 협의해 시기를 조정해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지협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인터뷰- 체육우수지도자⑤

일동종합고등학교 태권도부 코치 신동호

### "보다 높은 곳을 향해 전진하겠습니다"



일동중고 태권도부 선수들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신동호 코치(가운데).

"젊음의 패기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 11월 일동종합고등학교 태권도부에 부임했을 때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임했다는 신동호(26)코치.

일동중고 태권도부 창단멤버이자 용인대학교 태권도학과를 졸업한 신동호 코치는 코치라기 보다는 학생들의 큰 형 같이 선수들을 대한다고 한다.

1994년 창단한 일동중고 태권도부는 양성호(38)감독을 중심으로 남자선수 10명, 여자선수 4명으로 구성된 작은 규모의 조직을 가지고 있다.

신 코치는 "엘리트 교육을 중요시하는 타 시·군에서는 보통 20~30명 정도의 인원이 팀을 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태권도부가 그리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선수들이 각종경기에서 항상 중위권 이상의 성적을 내 주고 있기에 희망을 갖고 선수들과 호흡한다고 밝히는 신코치.

"비록 규모는 작지만 선수들 개개인이 최선을 다해 연습하고 있어 잠재가 유망하다"며 항상 선수들의 가능성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선수들의 성적관리를 우선으로 행한다"는 신코치는 "태권도는 운동을 하는 체육인구가 다른 종목과 달라 탁월한 운동신경과 더불어 뛰어난 두뇌가 필요한 경기"라며 공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신 코치의 이런 방침에 선수들은 오전수업은 전적으로 받고 훈련에 임한다. 또 선수들은 오후와 저녁시간을 이용해 하루에 평균 5시간 이상의 맹훈련을 받고 있다.

최근 신 코치는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바로 선수수급문제다.

"좋은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다"며 "아직은 어리기 때문

에 학부모 및 선수, 코치들과 상대하는데 어려움이 많지만 '패기' 하나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점을 높이산 선수들이 선풍 일동중고를 선택하고 있어 신 코치의 부담도 조금은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코치는 또 지난해 창단한 갈월중학교 태권도부가 몇 년 후면 졸업생을 배출해 그동안 어려웠던 선수 수급과 연계교육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학생들이 각종대회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냈을 때가 가장 좋다는 신코치는 "무엇보다도 이따하는 선수들이 가장 아깝다"고 밝혔다.

태권도는 돈이 많이 드는 스포츠는 아니지만 타 종목보다는 항상 지원이 적다는 것이 신코치의 지적이다.

"태권도는 타 종목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운동종목이다"며 "하지만 대회 출전시 많은 부분의 지원이 미약하다"며 국가를 대표하는 스포츠로서 관계당국이 엘리트체육인 태권도에도 보다 많은 신경을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신 코치는 포천이 태권도 하기에는 좋은 도시라며 시의 적극적인 지원에 만족하고 있다. 훈련이나 대회시 시에서의 지원이 잘되기 때문이다.

일동중고 태권도부는 지난해의 부진을 털고 최근 태권도 협회장기 단체전의 이견일 선수가 3위를, 제3회 하동국 제여자선수권대회에서 주니어페더급과 주니어 웰터급의 윤경숙(2년), 유혜미(1년)선수가 각각 1위를 차지하는 등 태권도 감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신 코치는 마지막으로 "선수들의 엄청난 코치이자 큰형처럼 선수들과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말을 마쳤다.

지협배 기자 94spice@hanmail.net

# 새로운 외식문화의 선두주자 수양돌판오리구이 전문점

최상급 오리고기만을 엄선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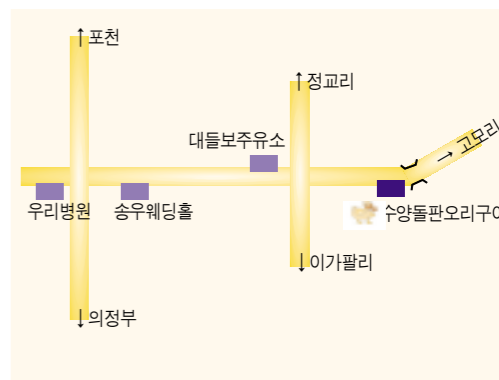
오리돌판구이



특수비법으로 구워낸 황토오리 진흙구이



돌판누룽지



탁월한 해독제 고단백 저 콜레스테롤

포천시 소흘읍 고모2리

Tel. 031)543-8956

H.P. 011-397-2991

대표 조영자